

그의 공법도 그의 수련의 연화형식(演化形式)이 있었다. 불교의 맥은 어떻게 가는가? 백회혈에서 시작해 이곳에서 완전히 뚫은 다음 나선식으로 정수리에서 몸 아래로 향해 발전하며, 최후에는 이런 형식으로 백맥을 이끌어 연다.

밀종(密宗)의 중맥(中脈) 역시 이 목적이다. 어떤 사람은 중맥이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왜 밀종은 중맥을 수련해 낼 수 있는가? 사실 사람 신체의 모든 맥을 다 합치면 만여 갈래에 그치지 않으며, 마치 혈관처럼 종횡(縱橫)으로 교차하는데, 혈관보다도 더 많다. 내장의 틈새 부분에 혈관은 없지만 오히려 맥은 있다. 정수리에서 신체의 각개 부위에 이르기까지 역시 종횡으로 교차된 맥락으로서, 그것들을 연결하면 시작할 때에는 곧지 않을 수도 있는데, 연결해서 소통한다. 그런 다음 점차 넓어져 차츰 한 갈래의 곧은 맥을 형성한다. 이 맥을 축으로 자전(自轉)하며, 그것의 수평으로 도는 의념 중의 몇 개 바퀴를 이끄는데, 목적은 역시 신체의 모든 맥을 전부 이끌어 열려는 것이다.

우리法輪大法(파룬파파)의 수련은 일맥이 백맥을 이끄는 이런 형식을 피하여, 시작부터 백맥을 이끌어 동시에 열며, 백맥을 동시에 운행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단번에 아주 높은 층차에서 연마(煉)하며, 매우 낮은 것을 피한다. 일맥이 백맥을 이끌 경우, 당신이 그것을 전부 이끌어 열려 한다면 어떤 사람은 평생토록 연마해도 여전히 힘겨우며; 어떤 사람은 몇십 년을 수련해야 하는데, 아주 어렵다. 아주 많은 공법

을 했고, 또 뭘 떼어버렸는데, 제가 연공(煉功)할 수 있습니까? 나는 이 모두 다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말한다. 다른 공간의 당신의 그 몸은 수술을 하지 않았으며, 연공은 그 몸이 작용을 일으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방금 말했지만, 당신이 그것을 잡을 때 당신이 그것을 건드리지 못하면 그것도 당신을 상관하지 않으며; 당신이 그것을 건드리면 그것은 곧 당신의 손을 상하게 할 수 있다.

국가의 대형 기공활동을 지지하기 위해, 나는 북경(北京)에서 일부 제자들을 데리고 동방건강박람회에 참가했다. 두 차례 박람회에서 우리들은 모두 가장 뛰어났다. 제1차 박람회에서 우리法輪大法(파룬파파)는 명성공파(明星功派)라는 영예가 주어졌고, 제2차 박람회에서 사람은 너무 많아 그야말로 어쩔 방법이 없었다. 다른 전시장에는 사람이 얼마 없었지만, 우리 전시장 주위에는 빼곡하게 차 있었다. 세 줄로 섰는데, 첫 줄엔 아침 일찍 오전 번호가 다 나갔고, 둘째 줄은 오후 번호를 받으려고 기다렸으며, 다른 한 줄은 내가 서명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는 병을 치료하지 않는데 왜 이것을 했겠는가? 왜냐하면 이것은 국가의 대형 기공활동을 지지하는 것으로서, 이 사업에 공헌하기 위해 우리는 참가했다.

나는 나의 공을 내가 데리고 있는 제자에게 매 사람마다 한 뭉씩 나누어 주었는데, 모두 백여 종의 공능을 합성한 에너지덩이였다. 그들의 손을 모두 봉해 주었는데, 이렇게 해도 어떤 제자의 손은 여전히 물려서 터지고, 물려서 물집이 생기

거나 물려서 피가 나는, 그런 일이 늘 나타났다. 그런 것들은 모두 그렇게 사나운데, 당신 생각에 당신 속인의 손으로 당신이 그것을 감히 건드릴 수 있겠는가? 게다가 당신은 그것을 잡지도 못하는데, 그런 공능이 없으면 또한 되지도 않는다. 왜냐하면 다른 공간에서 당신이 뭘 하려고 하여 당신의 머리가 생각만 해도 그것이 알기에, 당신이 그것을 잡으려 하면 그것은 미리 도망쳐 버린다. 환자가 문을 나설 때를 기다려 그것은 바로 또 올라가고, 병은 재발한다. 만약 손을 대어 그것을 다스리려면 이런 공능이 있어야 하는데, 손을 내밀기만 하면 ‘탁’ 거기에 고정된다. 고정된 후에, 우리는 또 한 가지 공능이 있는데, 과거에는 섭혼대법(攝魂大法)이라 했으며, 그런 공능은 더욱 대단하여 사람의 온元神(웬션)을 끌어낼 수 있어, 그 사람은 즉시 움직이지 못한다. 이 공능은 겨냥성이 있으며, 우리는 바로 이것을 겨냥하여 잡는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여래불(如來佛) 손 안의 그 사발이 이렇게 한번 비추기만 하면, 당신이 볼 때 손오공이 그렇게 크지만 단번에 조그마한 점으로 변해버린다. 이 공능은 이런 한 가지 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영체(靈體)가 얼마나 크든지, 영체가 얼마나 작든지, 단번에 쳐서 손에 잡아 쥐면 곧 아주 작게 변해버린다.

그 외에 손을 환자의 육체 속으로 밀어 넣었다가 다시 잡아 쥐어 내온다고 하는 그것은 안 된다. 그것은 속인사회의 사람의 사유를 모두 혼란시킬 수 있어 이렇게 하면 전혀 안 되며,

에 있어, 속인을 더욱 관여할 수 없다. 이는 가장 편리한 법문 일 뿐만 아니라, 우주특성에 따라 직접 연마(煉)하므로, 수련함이 가장 빠르고, 가장 가까운 길로서, 직지인심(直指人心)이다.

주천(周天)

도가(道家) 중에서 대소주천을 말하는데, 우리는 무엇이 주천인가를 말해 보겠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주천은 임독(任督) 두 맥을 이어 놓는 것이다. 이 주천은 피모주천(皮毛周天)으로서 아무것도 아니며 다만 병을 제거하고 몸을 건강하게 하는 것인데, 이것을 소주천(小周天)이라 한다. 또 한 가지 주천이 있다. 그것을 소주천이라 하지 않고 또 대주천(大周天)이라고도 하지 않는데, 선정(禪定) 중에서 수련하는 주천(周天) 형식의 하나다. 그것은 신체 안, 니환(泥丸)에서부터 한 바퀴 돌아 내려와서, 신체 안, 단전(丹田)에 이르러 한 바퀴 돌아 올라오는 내재적 순환으로서, 그것이 선정 중에서 수련하는 진정한 주천이다. 이런 주천은 형성된 이후에 또한 아주 강한 에너지흐름을 형성할 수 있다. 그런 다음 일맥이 백맥을 이끌어, 다른 맥을 모두 이끌어 열게 한다. 도가에서는 주천을 말하지만, 불교에서는 주천을 말하지 않는다. 불교에서는 무엇을 말하는가? 석가모니는 그의 그 일련의 법을 전할 때에 공을 말하지 않았다. 공을 말하지 않았지만

공을 얻으면 副元神(푸웬션)도 공을 얻는데, 무엇 때문인가? 당신 신체의 모든 정보, 모든 영체(靈體)와 당신의 세포는 모두 공이 자라고 있으므로 그도 물론 공이 자란다. 그러나 어느 때 가서든지 그는 모두 당신보다 높지 못하며, 당신이 주(主)이고 그는 호법(護法)이다.

여기까지 말한 김에 나는 또 한 마디 하겠다. 우리 수련계에는 이런 사람이 적지 않은데, 줄곧 고충차로 수련하려고 생각한다. 도처에서 법을 구하려고 돈도 적지 않게 썼으며, 방방곡곡을 한 바퀴 돌아 유명한 사부를 찾았지만, 찾지 못했다. 유명하다는 명(名)이 진정 명백하다는 명(明)은 아닐 수도 있다. 결국은 헛되이 돌아다니며 돈을 쓰고 고달팠지만, 아무 것도 얻지 못했다. 이렇게 좋은 공법을 우리는 오늘날 당신에게 내놓았고, 나는 이미 당신에게 받쳐 주었으며, 당신의 집문 앞까지 갖다 주었다. 이제는 당신이 수련할 수 있는가 없는가, 행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달렸다. 만약 당신이 행할 수 있으면 당신은 곧 수련하고; 만약 당신이 행할 수 없고, 만약 당신이 수련할 수 없다면, 그럼 당신은 이후부터 다시는 수련할 생각을 하지 말라. 마(魔)가 당신을 속이는 외에 당신을 가르칠 사람이 없는데, 이후에 당신은 수련하지 말라. 내가 만약 당신을 제도하지 못한다면, 누구도 당신을 제도하지 못한다. 사실 현재 당신이 진정한 정법 사부를 찾아 가르침을 받으려면 하늘에 오르기보다 더욱 어려운데, 관여하는 사람이 전혀 없다. 말법시기라, 아주 높은 층차마저도 말겁(末劫) 중

할 수 있어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가 밀어 넣는 것은 다른 공간의 그 손이다. 그의 심장에 병이 있다고 하면, 이 손을 심장부위에 대고 잡아 질 때, 다른 공간의 그 손이 들어간다. 순간적으로, 아주 빨리 잡아 쥔 다음 당신의 바깥 손이 잡기만 하면, 두 손을 한데 합쳐 곧 손에 잡게 된다. 그것은 매우 사나워, 어떤 때는 손에 잡아 쥐어도 움직이며 안으로 파고드는가 하면, 때로는 물기도 하고, 때로는 또 소리를 지른다. 당신이 보기에 손에 잡은 것이 그렇게 작지만 손을 놓으면 아주 크게 변할 수 있다. 이것은 누구나 다 건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공능이 없으면 전혀 건드리지 못하며, 전혀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다.

물론 장래에는 기공으로 병을 치료하는 이런 형식, 그것이 존재하게 할 수도 있으며, 과거에도 줄곧 존재했다. 그러나 반드시 조건이 있는 것으로서, 이 사람은 반드시 수련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수련과정 중에 그가 자비심에서, 그가 소수의 좋은 사람에게 이런 일을 해주는 것은 괜찮다. 그렇지만 그는 그의 위덕이 모자라서 다른 사람의 이 업(業)을 철저히 없애줄 수는 없다. 그러므로 난(難)은 여전히 있고, 다만 특정한 병이 나았을 뿐이다. 일반 소기공사, 그는 수련하여 득도(得道)한 사람이 아니기에 다만 그 사람에게 뒤로 미뤄줄 수 있으며, 또한 전화(轉化)해 줄 수 있어 다른 재난으로 전화해 놓을 수도 있다. 그러나 미뤄놓는 과정을 그 본인은 모를 수 있다. 만약 공법을 수련한 것이 副意識(푸이스)라면 그

의 副意識(푸이스)가 한다. 어떤 공법의 연공인(練功人)은 아주 유명한 것 같지만, 명성이 자자한 많은 대기공사, 그는 공이 없으며, 공은 모두 副元神(푸웬선) 몸에 있다. 다시 말해서 수련과정 중에 이렇게 함을 허용한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 층차 중에 지속(持續)되고 있어, 연마(練)하기만 하면 십몇 년인데, 몇십 년이 되어도 이 층차를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는 한평생 늘 사람에게 병을 봐주고 또 병을 봐주곤 한다. 그가 이 층차 중에 있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함을 허용한다.法輪大法(파룬따파)를 수련하는 제자는 절대로 병을 봐서는 안 된다. 환자에게 이 책을 읽어 주어, 만약 환자가 받아들일 수 있으면 병을 치료할 수 있지만, 업력의 크기가 다른 사람에게는 효과도 다르다.

병원 치료와 기공 치료

우리, 병원 치료와 기공 치료에 관계되는 문제를 말해 보자. 일부 양의사들은 기공을 승인하지 않는데, 이런 사람이 대다수라고 할 수 있다. 그의 견해는 이렇다. 기공이 병을 볼 수 있다면 또 우리가 병원을 해서는 뭘 하겠는가? 당신들이 우리 병원을 대신하라! 당신들 기공은 손만 대면 이 병을 낫도록 치료할 수 있으며 또한 주사를 맞고 약을 먹거나 입원할 필요도 없으니 우리 병원을 대신한다면 얼마나 좋은가? 이 말은 너무나 이치에 맞지 않으며 너무나 억지를 쓰는 것이다. 어떤

당신이 마음을 움직이는가 움직이지 않는가; 친척이나 친한 친구가 고통을 겪을 때 당신이 마음을 움직이는가 움직이지 않는가, 당신이 어떻게 가늠하는가 하는 것인데, 한 연공인(煉功人)으로서는 바로 이처럼 어렵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말했다: 스승님, 속인 중에서 좋은 사람이 되면 그만이지, 누가 수련해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나는 듣고 정말로 상심했다! 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떠한 心性(썬썬)이든 모두 있으며, 그가 얼마만큼 높이 깨달을 수 있으면 곧 그만큼 높이 깨달으며, 누가 깨달으면 바로 그가 얻는다.

노자가 말했다: 도는 도로되, 일상 도가 아니로다(道, 可道, 非常道). 그것이 만약 온 땅바닥에 널려 줍기만 해도 수련 성취된다면, 그 역시 진귀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이 법문은 모순 중에서 당신 자신이 공을 얻게 하므로, 우리는 최대한도로 속인에 부합해야 하는바, 물질상 당신에게 또 무엇을 실제로 잃으라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당신은 이 물질 환경 중에서 오히려 당신의 心性(썬썬)을 제고해야 한다. 편리하다면 바로 이것이 편리하다. 우리 이 한 법문은 가장 편리하며, 속인 중에서 수련할 수 있고, 출가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 가장 어려운 것 역시 이 점이 어려우며, 속인의 가장 복잡한 이 환경 중에서 수련하는 것이다. 그러나 가장 좋은 것 역시 이 점이 좋다. 왜냐하면 그는 당신 자신이 공을 얻게 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이 한 문의 가장 관건적인 것으로서,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말했다. 물론 主元神(주웬선)이

여러 해에 대중들 앞에서 이것을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 말하는 사람이 없다. 우리 이 한 법문은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바로 이런 수련방법이기에 바로 이렇게 공을 얻는다. 동시에 우리 이 한 문(門)이 넣어주는, 수천, 수만도 넘는 것을 전부 당신의 主元神(주웬선)에게 넣어주며, 진정하게 당신 자신이 공을 얻게 한다. 내가 말하는데 나는 앞서 사람들이 여태껏 하지 못한 한 가지 일을 하였으며, 가장 큰 문을 열어 놓았다. 나의 이 말을 어떤 사람은 알아듣는데, 나는 정말로 허황하게 말하지 않는다. 나 이 사람은 한 가지 습관이 있어, 나에게 한 장(丈)이 있으면 나는 한 자[尺]라고 말하는데, 당신은 내가 허풍을 떠다고 해도 좋다. 사실 이것은 조금만 말했을 뿐이며, 더욱 높고 깊은 대법(大法)은 층차가 너무나도 차이 나므로, 나는 전혀 당신에게 조금이라도 말해 줄 수 없다.

우리 이 한 법문은 바로 이렇게 수련하는 것으로서, 진정하게 당신 자신이 공을 얻게 한다. 이는 천지개벽 이래 처음으로, 당신은 역사에서 찾아봐도 된다. 좋은 것은 바로 당신 자신이 공을 얻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또한 아주 어렵다. 속인의 복잡한 환경 중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心性(썬썬) 마찰 중에서, 당신이 남달리 뛰어날 수 있는, 이것이 가장 어렵다. 어려운 것은 바로 당신이 속인의 이익 중에서 명명백백하게 손해를 볼 때, 절실한 이익 앞에서 당신이 마음을 움직이는가 움직이지 않는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혈뜬고 싸우는 중에서

사람은 기공을 요해(了解)하지 못한다. 실질적으로 기공이 병을 보는 것은 속인 중의 치료 방법과 같을 수 없는데, 그것은 속인 중의 기능이 아니며, 그것은 초상(超常)적인 것이다. 그러면 초상적인 것이 광범위하게 속인사회를 교란한다면 그것을 허용할 수 있겠는가? 부처는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가. 한 부처가 손을 한 번 휘저으면 온 인류의 병이 모두 없어질 것이다. 그는 왜 하지 않는가? 게다가 그렇게 많은 부처, 그가 왜 자비심을 베풀어 당신의 병을 고쳐주지 않는가? 왜냐하면 속인사회는 바로 이러하고, 생로병사는 바로 이런 상태로서, 모두 인연관계가 있으며, 모두 업력윤보(業力輪報)라, 당신이 빛을 졌으면 갚아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당신이 그를 치료해 주었다면 곧 그 이치를 파괴하고, 모두 나쁜 일을 하고도 갚지 않아도 된다는 것과 같은데, 그것이 될 말인가? 수련 중의 사람이 자비심에서, 당신이 그렇게 큰 힘이 없어 철저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라면, 당신이 병을 보는 것을 허용한다. 왜냐하면 당신은 자비심이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함을 허용한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진정하게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광범위하게 해결한다면 그것은 안 된다. 그러면 당신은 속인사회의 상태를 심하게 파괴하는 것이기에, 허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기공이 속인의 병원을 대신하는 것은 전혀 안 되는 것이며 그것은 초상적인 법이다.

만약 중국 이곳에서 기공 병원을 차린다면, 가령 이렇게 함

을 허용하여 기공사들이 모두 나와 한다면, 당신이 보라, 어떤 모양이겠는가? 모두 속인사회 이 상태를 수호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만약 기공 병원을 차리고 기공진료소·재활센터·요양명승지를 차린다면, 일단 차린 후 그 기공사의 병 치료는 일락천장(一落千丈)이 되며 치료 효과가 즉시 없어진다. 무엇 때문인가? 그가 속인 중에 이것을 차렸기 때문에 반드시 속인의 법과 같은 높이여야 하고, 속인의 상태와 같은 층차 중에 있어야 하며, 그것의 치료 효과는 병원과 같아야 한다. 그러므로 병 치료가 안 되며, 그도 병 치료에 무슨 몇 단계 치료 과정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흔히 모두 이리하다.

기공, 그것이 병원을 설립하든지 설립하지 않든지, 기공으로 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이 한 점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기공은 사회에서 이토록 오랜 시간 보급되었으며, 수많은 사람이 연공(練功)을 통해 확실히 병을 제거하고 몸을 건강하게 하는 목적에 도달했다. 그가 기공사에 의해 병이 미뤄졌든 어떻게 되었든, 어쨌든 그 병이 현재는 없어졌다. 즉, 다시 말해서 기공이 병을 치료할 수 있음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기공사를 찾아 병을 보는 대다수는 모두 난치병에 속하는데, 병원에 가 봐도 낫지 않자, 대운(大運)이나 만날지 기공사에 가본 것이 결국 치료되었다. 병원에서 치료할 수 있는 것은 모두 기공사를 찾지 않는데, 더욱이 초창기에는 사람들이 모두 이렇게 인식했다. 그러므로 기공으로 병을 볼 수 있다.

경 중에서 당신은 또렷한 정신으로 이익 문제에서 명명백백하게 손해를 보고,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절취당할 때에 당신은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다투고 싸우지 않으며; 각종 心性(心性)의 교란 중에서 당신은 손해를 보며; 당신은 이런 간고한 환경 중에서 당신의 의지를 연마(魔煉)하고, 당신의 心性(心性)을 제고하여, 속인의 각종 좋지 않은 사상의 영향하에서도 당신은 초탈해 나올 수 있다.

여러분, 생각해 보라. 명명백백하게 고생을 겪는 것은 당신이 아닌가. 대가를 치른 것은 당신의 主元神(주원선)이 아닌가. 속인 중에서 당신이 잃는 것은, 당신이 명명백백하게 잃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이 공은 마땅히 당신이 얻어야 하며, 누가 잃으면 바로 그가 얻어야 한다. 그러므로 이것이 바로 왜 우리 이 한 법문이 속인의 이 복잡한 환경을 이탈하지 않고 수련하는가 하는 까닭이다. 왜 우리는 속인의 모순 중에서 수련해야 하는가? 바로 우리 자신이 공을 얻어야 하기 때문이다. 장래에 사원에서 수련하는 전수제자(專修弟子)는 반드시 속인 중에 가서 행각해야 한다.

일부 사람들은 말한다: 현재 다른 공법도 속인 중에서 연마(練)하고 있지 않은가? 그러나 그런 것들은 모두 병을 제거하고 몸을 건강하게 하는 것을 보급하는 것으로서, 진정하게 고층차로 수련하는 공법은 단독으로 전하는 외에 공개적으로 전하는 사람이 없다. 진정하게 도제(徒弟)를 이끄는 사람들은 이미 도제를 모두 데리고 가서 비밀리에 전하고 있다. 이

세(來世)에 높은 벼슬을 하고, 큰 부자가 되게 할 수 있다. 단지 이럴 뿐인데 그렇다면 헛되게 수련하지 않았는가?

이런 일을 우리가 내놓고 말하게 된 것도 아주 많은 곡절을 거쳐서야 비로소 동의를 얻은 것이다. 나는 천고의 수수께끼, 절대로 말할 수 없는 비밀 중의 비밀을 계시(揭示)했으며, 역대로 수련하는 각종 수련방법의 밑뿌리까지 모두 계시해 냈다. 내가 역사적인 연원(淵源)과 아주 깊게 연관된다고 말하지 않았는가? 바로 이런 이유이다. 당신이 생각해 보라. 어느 가(家), 어느 문(門)이든 이렇게 수련하지 않는가? 당신 자신이 수련하고 수련해 당신이 공이 없다면 당신은 슬프지 않은가! 그렇지만 또 누구를 원망하겠는가? 사람은 바로 그렇게 미혹되고 좀처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점화(點化)해도 안 된다. 높게 말하면 듣기에 허황하고, 낮게 말하면 깨닫지를 못한다. 내가 이렇게 말해도 어떤 사람은 아직도 나에게 그의 병을 치료해 달라고 하는데, 나는 정말로 그에게 뭐라고 할 수가 없다. 우리는 수련을 말하며, 고층차로 수련해야만 책임져 줄 수 있다.

우리 이 한 법문은 主意識(주이스)가 공을 얻는다. 그러면 당신이 主意識(주이스)가 공을 얻는다고 하면 主意識(주이스)가 공을 얻는가? 누가 허용하는가? 이런 것이 아니며, 그것은 반드시 선결조건이 있어야 한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우리 이 한 법문은 속인사회를 피하지 않고 수련한다. 모순을 피하거나 모순에서 도망치지도 않으며; 속인의 이 복잡한 환

그것은 단지 속인사회 중의 다른 일처럼 그렇게 할 수 없을 뿐이다. 광범위하게 간섭하는 것은 절대 허용하지 않지만, 작은 범위로나 무슨 그리 큰 영향이 없으면서 소리 소문 없이 하는 것은 허용할 수 있다. 그러나 병을 철저하게 낮게 할 수 없다는 것 또한 확실하다. 기공 단련으로 스스로 병을 제거하는 것이 가장 좋다.

또 어떤 기공사는 말한다: 병원에서는 병을 치료하지 못하며, 현재 병원의 치료 효과는 어떠한가. 우리는 어떻게 말하는가? 물론 그것은 여러 방면의 원인이 있다. 내가 볼 때 가장 주요한 것은 역시 인류 도덕수준의 저하(低下)로서, 이로 인해 조성된 각종 기괴한 병은 병원에서 치료하지 못한다. 약을 먹어도 듣지 않고, 가짜 약도 많은데, 모두 인위적인 것으로서, 사회를 이 정도까지 파괴(敗壞)되게 했다. 다들 남을 탓하지 말라. 사람마다 파란을 더 크게 일으키는 작용을 하였다. 그러므로 수련함에 사람마다 모두 고난과 마주칠 것이다.

어떤 병은 병원에서 검사해 내지 못하지만 확실히 병은 있다. 어떤 사람은 병을 검사해 냈으나 무슨 이름인지도 모르며 모두 보지 못했던 병이므로, 병원에서는 통틀어 ‘현대병’이라고 한다. 병원에서 병을 치료할 수 있는가? 물론 할 수 있다. 병원에서 병을 치료하지 못하면 사람들이 어찌 믿을 수 있으며, 어찌 모두 병원에 가서 병을 치료하겠는가. 병원은 그래도 병을 치료할 수 있다. 다만 그것의 치료 수단은 속인 그 층차의 것에 불과하나 그 병은 오히려 초상(超常)적인 것으

로서, 어떤 병은 상당히 크다. 그러므로 병원에서는 병이 있으면 조기에 치료하라고 하지 않는다. 커지면 그는 치료하지 못하며 약의 양이 많아지면 사람은 또 중독된다. 현재의 의료 수준은 우리의 과학기술 수준과 마찬가지로, 모두 속인 이 한 층차 중에 처해 있다. 그러므로 그것은 바로 이런 치료 효과다. 한 가지 문제를 분명하게 말해야겠다. 일반적인 기공 치료와 병원 치료는 병의 근본 원인을 조성한 난(難)을 뒤로 미루며, 후반생 또는 이후로 미룰 뿐, 업력은 전혀 건드리지 못한다.

우리 다시 중의(中醫)를 말해 보기로 하자. 중의가 병을 치료함은 기공 치료와 아주 가깝다. 중국 고대의 중의사는 기본적으로 다 특이공능이 있었다. 손사막(孫思邈)·화타(華佗)·이시진(李時珍)·편작(扁鵲) 등등과 같은 이런 대의학자들은 모두 특이공능이 있었는데, 의서(醫書)에 모두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흔히 이런 정화(精華)적인 것이 현재는 비판 받고 있으며, 중의가 계승한 것은 다만 그런 약 처방 또는 경험의 모색(摸索)에 불과하다. 중국 고대의 중의는 상당히 발달한 것으로서, 발달한 정도는 현재의 의학을 능가했다. 어떤 사람은 생각할 것이다. 현재의 의학이 얼마나 발달했는가. CT를 하면 사람의 신체 내부를 볼 수 있고, 초음파를 하며, 사진을 찍고, X선 촬영을 한다. 현대 설비는 대단히 선진적이지만, 내가 보기에는 역시 중국의 고대의학만 못하다.

화타는 조조(曹操)의 머리 속에 종양이 있는 것을 보고 두

을 제고해 속인의 각종 이익의 유혹에도 마음을 움직이지 않고 여러 해를 거쳐 그는 행각하고 돌아왔다. 사부가 말했다: 자네는 이미 도를 얻었고 원만(圓滿)하였네. 다른 일이 없으니 자네는 돌아가 떠날 준비를 하도록 하고, 만약 무슨 일이 있으면 자네는 속인 중의 일을 끝마치도록 하게. 이리하여 여러 해 후에 副意識(푸이스)가 돌아왔다. 그가 돌아오자 이쪽 그의 主元神(주웬선) 역시 정(定)에서 나와 主意識(주이스)가 잠에서 깨어난다.

그렇지만 그는 확실히 수련하지 않았고, 남인 副元神(푸웬선)이 수련했으므로 副元神(푸웬선)이 공을 얻었다. 그러나 主元神(주웬선)인 그 역시 고달팠다. 그는 결국 거기에 앉아서 온 청춘을 모두 보냈으며, 속인의 세월이 전부 지나가 버렸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그는 그가 출정(出定)하자마자 자신이 공을 연마(煉)해 냈으며 공능이 있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그가 병을 치료하려 하고, 무엇을 하려 하면 바로 그것을 할 수 있는데, 副元神(푸웬선)이 그를 만족시켜 준다. 왜냐하면 그가 필경은 主元神(주웬선)이며 主元神(주웬선)이 신체를 주재(主宰)하고 마음대로 하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이렇게 오랜 세월을 그는 여기에 앉아서 일생을 모두 보냈다. 생을 마친 후 副元神(푸웬선)은 떠나가게 되는데, 각기 제 갈 길로 간다. 불교의 말에 따르면 그는 여전히 육도(六道)에 들어가야 한다. 그의 몸에서 대각자를 수련해 냈으므로 그 역시 큰 德(더)를 쌓은 것인데,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내

가 잠시 후에 올 테니 자네는 날 기다리도록 하게.

사부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명백히 알면서도 이렇게 해야만 한다. 결국 마(魔)가 와서 그를 위협하고 미녀로 변하여 그를 유인하며, 어떤 일이든 다 있다. 보니 그가 정말로 마음을 움직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副元神(푸웬션)은 수련하기가 비교적 쉬우며 그가 이 진상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마(魔)는 화가 나서 그를 죽이려 하며, 복수를 하여 한을 풀기 위해 정말로 그를 죽이는데, 이렇게 하여 빚을 전부 갚는다. 살해된 후, 副元神(푸웬션)은 가물가물하게 마치 한 가닥 연기처럼 나왔다. 또 전생(轉生)하여 매우 가난한 집에 탁생(托生)했다. 어려서부터 고생을 겪으며 자라서 철이 들었을 때 사부가 왔으나 그는 당연히 알아보지 못한다. 사부가 공능으로 그의 저장된 사유를 열어 놓자 단번에 생각났다. 이 분은 사부님이 아니신가? 사부는 그에게 알려 준다: 이제 됐어, 연마(煉)할 수 있네. 이렇게 수많은 해를 거쳐서 사부는 그의 것을 그에게 전해 주었다.

다 전한 다음 사부는 또 그에게 알려 준다: 자네는 많은 집착심을 제거해야 하니 자네는 나가서 행각하게나. 행각은 무척 고생스러운 것으로서, 사회 중에서 다니며 동냥을 해야 하는데, 각종 사람과 마주치게 된다. 그를 비웃고, 그에게 욕설을 퍼붓고, 그를 우롱하는데, 어떤 일에든 모두 부딪힐 수 있다. 그는 자신을 연공인(煉功人)으로 여기고 사람들과 관계를 바로잡으며, 心性(썬썬)을 지키고, 끊임없이 心性(썬썬)

개골을 열고 종양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자고 했다. 조조는 듣자마자 화타가 그의 머리를 자르려 한다고 생각해 화타를 가뒀으며, 화타는 결국 감옥에서 죽었다. 조조가 병이 재발했을 때, 화타가 생각나서 화타를 찾았으나 화타는 이미 죽었다. 후에 조조는 정말로 이 병으로 죽었다. 화타는 어떻게 아는가? 그는 보았던 것이며, 이는 우리 사람의 특이기능인데, 과거의 대의학자는 모두 이런 능력을 구비하고 있었다. 천목이 열린 후에는 한 면에서 동시에 사람 신체의 네 면을 볼 수 있는데, 앞면에서부터 뒷면·왼쪽 면·오른쪽 면을 볼 수 있고; 또 한층 한층 절편(切片)하여 볼 수 있으며; 또 이 공간을 꿰뚫어 병이 있는 근본 원인이 무엇인가를 볼 수 있다. 현재의 의료수단이 도달할 수 있겠는가? 차이가 너무나도 커 천 년은 더 지나야 할 것이다! CT, 초음파, X선도 인체 내부를 볼 수 있지만, 기계는 너무나도 커서 그렇게 큰 것을 몸에 휴대할 수 없으며, 전기가 없어도 안 된다. 그러나 이 천목은 어디를 가든 거기로 가지고 갈 수 있고 아울러 에너지원도 필요 없으니 어찌 비교할 수 있겠는가!

어떤 사람은 현재의 약이 어떠어떠하다고 한다. 나는 그런 것도 아니라고 말한다. 중국 고대의 그런 초약(草藥)은 정말로 약으로 쓰기만 하면 병을 제거할 수 있었다. 아주 많은 것이 실전(失傳)되었으며, 또 아주 많은 것이 실전되지 않아 민간에서 유전(流傳)하고 있다. 내가 치치하얼(齊齊哈爾)에서 학습반을 열 때, 한 사람이 거리에 노점을 차려 놓고 사람들

의 이를 뽑아주는 것을 보았다. 보니 이 사람은 남방에서 왔는데 동북사람과 같은 옷차림이 아니었다. 오는 사람을 거절하지 않고 누가 와도 그는 모두 뽑아 주었는데, 뽑은 이가 그렇게 한 더미나 되었다. 그는 사람에게서 이를 뽑아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의 약물(藥水)을 파는 것이 목적이었다. 그 약물은 매우 짙은 누런 기(氣)를 내뿜었다. 이를 뽑을 때, 약병 마개를 열고 밖에서 뺨을 사이에 두고 아픈 이에 대고는 사람에게서 누런 약물의 기를 몇 모금 빨아들이게 했다. 약물이 얼마 소모되지도 않았는데, 마개를 닫아 거기에 놓았다. 주머니에서 성냥개비 하나를 꺼내어, 한편으로 그의 약을 말하면서, 한편으로는 성냥개비로 이를 살짝 해집으니, 이가 뽑혔는데, 아프지도 않고 피가 좀 묻었을 뿐 출혈도 없었다. 여러분, 생각해 보라. 성냥개비는 만약 힘을 세게 주면 부러지는데, 그는 오히려 성냥개비로 이를 살짝 들춰 뽑아냈다.

중국의 어떤 것은 민간에서 유전(流傳)하고 있는데, 양의 정밀기기는 그것만 못하다고 나는 말한다. 누구의 효과가 좋은지 보자. 그는 성냥개비로 들추기만 하면 빠져 나온다. 양의는 이를 뽑을 때에 먼저 마취약을 놓으며, 이쪽에 찌르고 저쪽에 찔러 주사를 맞는 것도 대단히 아픈데, 마취약이 효과를 낼 때를 기다린 다음 집게로 뽑는다. 반나절이나 뽑다가 잘못하여 뿌리가 속에서 부러졌다. 큰 망치와 끌로 내리치는데, 내리치는 것에 혼비백산할 지경인데다가, 또 정밀한 기기로 뚫는다. 어떤 사람은 뚫을 때 펄쩍 뛰는데, 몹시 아프며,

고, 현재의 사회형식일 수도 있는가 하면, 다른 공간의 사회형식일 수도 있다. 그에게 연공(煉功)을 가르쳐 그는 고생을 적지 않게 겪는데, 매일 한·두 시간씩이다. 그가 연공을 마치고 돌아오면 당신도 출정(出定)한다. 이것은 그나마 볼 수 있는 것이다.

만약 볼 수 없다면 더욱 슬픈 것으로서, 아무것도 모르고 얼떨떨하게 두 시간 정(定)에 들었다가 출정한다. 어떤 사람은 자는데 한번 잠이 들면 두·세 시간이라, 그도 연공을 끝냈다고 하지만 완전히 남에게 맡겼다. 이것은 간접적으로 완성한 것으로서, 매일 가부좌를 이렇게 장시간 한다. 또 한 번에 완성하는 것이 있다. 여러분은 달마의 면벽 9년(達摩面壁九年)을 들었을 것인데, 과거에 많은 승려가 한번 앉으면 몇십 년이라, 역사상 기록에서 가장 긴 것은 90여 년이나 되는데, 더 긴 경우도 있다. 눈까풀 위에 먼지가 아주 두툼하게 쌓이고, 몸에 풀까지 자라났어도 여전히 거기에 앉아 있다. 도가 역시 이것을 말하는데, 특히 일부 기문공법(奇門功法)에서는 잠자는 것을 말하며, 한번 잠들면 몇십 년 동안 출정(出定)하지 않고 깨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누가 연마(煉)했는가? 그의 副元神(푸웬션)이 나가서 연마했다. 만약 그가 볼 수 있다면 사부가 副元神(푸웬션)을 데리고 연마하는 것을 볼 것이다. 副元神(푸웬션) 역시 아주 큰 업력을 빚질 수 있는데, 사부는 업력을 전부 없애버릴 능력이 없다. 그래서 그에게 알려 준다: 자네는 여기에서 연공(煉功)을 잘 하도록 하게. 내가 나갔다

란 아주 어려운데, 바로 사람의 主元神(주웬선)이 너무나도 미혹되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오성(悟性)이 좋아 점화해 주자마자 바로 깨닫는다. 일부 사람들은 어떻게 말해 주어도 그는 다 믿지 않으며, 그는 당신이 큰소리만 친다고 여긴다. 우리가 이렇게 그에게 心性(썬썬)을 수련하라고 하지만, 그는 속인 중에 가기만 하면 여전히 제멋대로다. 그는 속인 중의 그 확실하고 확실하며, 만질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요만한 이익이 그래도 실익이므로 이것을 가져야겠다고 생각한다. 스승님께서 말씀하신 법은, 들어보면 역시 이치가 있지만, 해낼 수 없다고 한다. 사람의 主元神(주웬선)은 가장 제도하기 어렵지만, 副元神(푸웬선), 그는 다른 공간의 광경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그들은 생각한다. 내가 구태여 당신의 主元神(주웬선)을 제도할 것이 뭐 있는가. 그 역시 당신인데 내가 그를 제도해도 마찬가지로 아닌가? 모두 당신으로서 누가 얻어도 얻는 것이 아니겠는가. 모두 당신이 얻는 것이다.

나는 그의 구체적인 수련방법을 말하겠다. 사람이 만약 요시공능(遙視功能)이 있다면 이런 광경을 볼 수 있다: 당신이 가부좌하여 당신이 정(定)에 드는 일순간에 ‘혹’ 당신의 신체 속에서 당신과 생김새가 똑같은 또 한 명의 당신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당신은 한번 분별해 보라. 당신의 자아가 어디에 있는가? 여기에 앉아 있다. 당신은 그가 나간 후에 사부가 그를 데리고 사부가 연화(演化)해 낸 한 공간 속에서 수련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아마 과거의 사회형식일 수도 있

출혈도 적지 않아 한참을 뺏어내야 한다. 당신이 말해 보라. 누구의 것이 좋은가? 당신이 말해 보라. 누구의 것이 선진적인가? 우리는 표면의 도구만 볼 수 없으며, 그것의 실제 효과를 보아야 한다. 중국 고대의 중의는 상당히 발달한 것으로서, 현재의 양의는 얼마만한 해가 더 지나도 따라잡지 못한다.

중국 고대의 과학은 우리의 현대 서방에서 배운 과학과는 같지 않으며, 그것이 걷는 것은 다른 한 갈래 길로서 다른 상태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 현재의 이런 인식방법으로 중국 고대의 과학기술을 인식해서는 안 된다. 중국 고대의 과학은 인체·생명·우주를 겨냥하여 직접 이것을 향해 연구했기 때문에 걷는 것은 다른 한 갈래 길이었다. 그때에 배우러 다니는 사람은 모두 가부좌를 중시했으며, 앉음에는 자세를 중시했고, 붓을 잡는 데는 기를 운행하여 호흡함을 중시했으며, 각 업종은 모두 마음을 깨끗이(淨心) 하고, 호흡 조절(調息)을 중시했는데 전반 사회는 모두 이런 상태에 처해 있었다.

어떤 사람은 말한다: 중국의 고대 과학을 따라간다면 오늘날의 자동차·기차가 있을 수 있는가? 오늘날의 현대화가 있을 수 있는가? 나는 당신이 이런 환경 중에 서서 다른 상태를 인식할 수 없으며, 당신의 사상관념은 혁명이 일어나야 한다고 말한다. 텔레비전이 없어도 사람의 머리 앞면에 자신이 가지고 있어 무엇을 보려면 바로 그것을 볼 수 있으며, 또한 공

능도 존재한다. 기차·자동차가 없어도 사람은 거기에 앉은 채
 뜰 수 있고, 엘리베이터도 필요 없다. 그것은 부동(不同)한
 사회발전 상태를 가져올 것이며, 이 틀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
 다. 외계인의 비행접시는 오고감이 신속(神速)하며, 커질 수
 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다. 그것들이 걷는 것은 더욱 같지 않
 은 발전노선으로서, 또 다른 과학방법이다.

(煉)했는가 하지 않았는가? 자신도 전혀 모른다. 특히 도가공
 법 중에서는 말한다: 식신(識神)은 죽고 元神(웬선)이 산다.
 그가 말하는 식신을 우리는 主元神(주웬선)이라 하고, 그가
 말하는 元神(웬선)을 우리는 副元神(푸웬선)이라 한다. 당신
 이 정말로 식신이 죽었다면 당신은 진정 죽어버린 것이고, 主
 元神(주웬선)이 정말로 없어진 것이다. 다른 공법을 연마
 (練)했던 사람이 말했다: 스승님, 저는 연공(練功)할 때에
 집안사람들을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에게 말한다: 저는 결코 다른 사람처럼 그렇게 아침 일찍부
 터 밤늦게까지 연공하지 않습니다. 제가 집에 돌아가 소파에
 눕기만 하면 저 자신은 곧 나가서 연공하는데, 저는 누워서
 그가 연공하는 것을 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아주 슬프다. 그
 러나 또 슬프지도 않다!

남들은 왜 副元神(푸웬선)을 제도하는가? 여동빈(呂洞賓)
 의 한마디 말이 있다: 동물을 제도할지언정 사람을 제도하지
 는 않겠다. 사람은 정말로 깨닫기가 너무나도 어렵다. 왜냐하
 면 속인은 속인사회에 미혹되어 현실이익 앞에서 그 마음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이다. 당신이 믿지 못하겠으면 보라. 어
 떤 사람은 강의를 다 듣고 강당을 나가면 바로 속인으로 변한
 다. 누가 만약 그의 심기를 건드리거나, 그에게 집적거리거나
 하면 그는 가만있지 않는다. 한동안 시간이 지난 후에는 아예
 자신을 연공인(煉功人)으로 여기지 않는다. 역사상 수도(修
 道)하는 많은 사람이 모두 이 점을 보았다. 사람을 제도하기

제 8 강

벽곡(辟穀)

어떤 사람은 벽곡(辟穀) 문제를 말한다. 벽곡, 이런 현상은 존재하는 것이며, 수련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온 인류사회에서 적지 않은 사람에게 이런 정황이 나타났다. 어떤 사람은 몇 년이나 십몇 년을 먹지도, 마시지도 않지만 오히려 생활하는 것이 아주 좋다. 어떤 사람은 벽곡을 어느 한 층차 중의 체현이라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벽곡을 신체를 정화(淨化)하는 행위라 하며, 또 어떤 사람은 그것을 고층차 중의 수련과정이라고 한다.

사실 모두 아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어찌된 일인가? 벽곡은 실재상 바로 우리가 특정한 환경에서 채용하는 특수한 수련방법이다. 어떤 특정한 환경에서 그것을 채용하는가? 중국 고대, 특히 종교가 아직 건립되기 전에 수련하는 많은 사람이 모두 일종의 비밀수련(密修)·단독수련(獨修), 이런 방식을

그러나 우리는 진정하게 고층차로 사람을 이끄는 것으로서, 바로 사람을 제도하는 것이다. 여러분을 책임져야 하며 이 책임을 감당할 수 있으므로 천기를 누설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책임지지 않고 함부로 말하는 것은 바로 천기를 누설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는 이 문제를 말하겠다: 즉 누가 연공(煉功)하면 바로 그가 공을 얻는 문제다. 내가 보기에, 현재 모든 공법은, 역대의 불도(佛道) 양가(兩家)와 기문공법(奇門功法)을 포함하여 모두 사람의 副元神(푸웬션)[副意識(푸이스)]을 수련했으며, 모두 副元神(푸웬션)이 공을 얻었다. 우리가 여기에서 말하는 主元神(주웬션)은 바로 자신의 사유(思維)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자신은 자기가 무엇을 생각하며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진정한 당신 자신이다. 그러나 副元神(푸웬션)이 무엇을 하는지 당신은 전혀 모른다. 비록 그와 당신이 동시에 태어났고 같은 이름으로 불리며, 동일한 신체를 주재(主宰)하고 생김새도 같지만, 엄격하게 말하면 그는 또 당신이 아니다.

이 우주 중에는 누가 잃으면 바로 그가 얻고, 누가 수련하면 바로 그가 공을 얻는다는 이치가 있다. 역대의 공법은 모두 사람이 연공(煉功)할 때에 흐리멍덩하고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며, 그런 다음 깊이 입정(入定)하여 최후에는 자신이 아무것도 모를 때까지 정(定)에 들어야 한다고 가르쳤다. 어떤 사람은 가부좌를 세 시간 해도 마치 한순간과도 같은데, 다른 사람들은 또 그의 정력(定力)에 탄복한다. 사실 그가 연마

채용하여 심산 속에 들어가거나 동굴에 들어가 수련하면서 사람들을 멀리했다. 일단 이렇게 하면, 그럼 곧 음식물 공급 문제와 연관된다. 만약 그가 벽곡이라는 방법을 채용하지 않는다면 전혀 수련할 수 없으며, 바로 그 안에서 굶어죽거나 목말라죽게 된다. 내가 중경(重慶)에서 무한(武漢)으로 설법하러 갈 때, 배를 타고 장강(長江)을 따라 동쪽으로 가면서, 삼협(三峽) 양쪽 산중턱에 동굴들이 있는 것을 보았는데, 많은 명산에는 다 이런 것이 있다. 과거에 수련하는 사람은 밧줄을 타고 들어간 후, 밧줄을 끊어버리고 동굴 속에서 수련했는데, 수련해 내지 못하면 그 안에서 죽어야 했다. 물도 없고 음식도 없는, 바로 이처럼 극히 특수한 환경하에서 그가 채용한 특수한 수련 방법이었다.

많은 공법은 이런 이어받고 전하는 과정을 거쳤으므로 그것에는 벽곡이 있고; 많은 공법에는 벽곡이 없으며, 우리 오늘날 사회에서 전하는 공법 중 대다수에는 이것이 없다. 연공(煉功)은 전일(專一)해야 한다고 우리는 말하는데, 당신이 인위적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여 어떻게 해서는 안 된다. 당신이 그것을 대단히 좋다고 느껴 당신도 벽곡을 하려고 하지만 당신이 벽곡을 해서는 뭘 하는가? 어떤 사람은 아주 좋고 신기하다고 느끼거나, 혹은 자신의 공부(功夫)가 높아서 과시하고 과시할 수 있다고 여기는데, 각종 심태의 사람이 다 있다. 설령 이런 방법을 채용해 수련한다 하더라도 자신의 에너지를 소모해 신체를 보충해야 하므로 역시 득보다 실이 더 많

른 사람이 그의 곁에 가면 그의 신체에서 서늘함을 느낀다. 그 식물의 기는 음성(陰性)이 아닌가? 연공인(煉功人)은 또 음양평형을 중시하는데, 그의 몸에는 온통 송진 냄새지만 그래도 자신이 연마(練)를 잘 한다고 생각한다.

누가 연공(煉功)하면 바로 그가 공(功)을 얻는다

누가 연공(煉功)하면 바로 그가 공을 얻는 문제는 극히 관건적인 문제다. 다른 사람이法輪大法(파룬따파)는 무슨 좋은 점이 있느냐고 하면, 나는,法輪大法(파룬따파)는 공이 사람을 연마함(功煉人)에 도달할 수 있어 연공 시간을 단축하며, 시간이 없어 연공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를 온종일 끊임없이 공에 의해 연마되게 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고 한다. 동시에 우리는 또 진정한 성명쌍수(性命雙修) 공법으로서, 우리 이 물질신체는 아주 큰 변화가 있게 된다.法輪大法(파룬따파)는 최대 이점이 또 하나 있는데, 과거에 나는 내내 말하지 않았지만, 오늘 비로소 우리는 말한다. 그것은 아주 큰 역사연원(歷史淵源)의 문제에 연관되며 수련계에 영향 주는 면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역사상 여태껏 감히 계시(揭示)해 낸 사람이 없었고, 또 그들이 계시하는 것을 허용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나는 말하지 않으면 안 된다.

어떤 제자는 말한다: 리홍쯔 대사(李洪志大師)님께서 말씀하신 한 마디 한 마디가 천기(天機)이며, 천기를 누설하신다.

님의 영향을 받아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하려 하지 않으며, 또 이런 것들을 계통적으로 정리하는 사람이 없다.

나는 동북(東北)의 어느 공원에서 한 소나무 숲이 죽어버린 것을 보았다. 일부 사람들은 또 무엇을 연마(練)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온 땅을 텅굴고, 텅군 다음에는 발로 이렇게 채집하고 손으로 그렇게 채집하여, 그 소나무 숲은 오래지 않아 누렇게 되었고 모두 죽어버렸다. 그러면 당신은 좋은 일을 한 것인가, 아니면 나쁜 일을 한 것인가? 우리 연공인(煉功人)의 각도에서 보면, 그것은 바로 살생이다. 당신이 연공인이라면 당신은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하며, 점차적으로 우주특성에 동화하여 당신의 그런 좋지 않은 것을 끊어버려야 한다. 그것은 속인의 각도에서 본다면 해도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닌데, 공공물을 파괴하고, 녹화(綠化)를 파괴하며, 생태평형을 파괴하는 것으로서, 어느 각도에서 말하든지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 우주 중에는 기가 얼마든지 있으므로 당신이 얼마든지 채집해도 좋다. 어떤 사람은 에너지가 아주 커서, 일정한 층차로 연마(練)한 후에 그야말로 손을 한번 휘젓기만 하면, 아주 큰 범위 내의 식물의 기를 단번에 채집해 온다. 그것 역시 기에 불과한데 아무리 많이 채집한들 뭐가 어떻단 말인가? 어떤 사람은 공원에 가서 다른 일을 하지 않는다. 그는 말한다: 나는 연공(練功)할 필요 없이 내가 이렇게 걸어가면서 거뒤편이기만 하면, 나는 곧 연마(練)가 끝난다. 기를 얻기만 하면 된다고 하는데, 그는 기를 바로 공이라 여긴다. 다

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특히 종교가 건립된 후에는 당신이 절에서 좌선(打禪)·폐관(閉關)을 하더라도 당신에게 차와 밥을 공급하는 사람이 다 있어, 이 문제와 연관되지 않는다. 특히 우리는 속인사회 중에서 수련하므로 당신은 전혀 이런 방법을 채용할 필요가 없으며, 또한 당신의 그 한 법문에 없으면 당신 역시 함부로 할 수 없다. 그러나 당신이 정말로 벽곡을 하려 한다면, 그럼 당신은 얼마든지 수련하도록 하라. 내가 알기로는, 흔히 사부가 고층차로 공을 전하고 진정하게 사람을 이끈다면, 그의 이 한 법문 안에는 벽곡이 있으며,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보급할 수 없으며 모두 흔히 도제(徒弟)를 데리고 비밀수련(密修)·단독수련(單修)을 한다.

지금도 사람들에게 벽곡을 가르치는 기공사가 있다. 벽곡했는가, 못했는가? 최후에는 벽곡을 하지 못했는데 누가 벽곡했는가? 내가 보니 입원한 사람이 적지 않고, 생명 위험이 나타난 사람이 적지 않다. 그렇다면 왜 이런 정황이 나타날 수 있는가? 벽곡이라는 현상은 있는 것이 아닌가? 있다. 그러나 한 가지가 있는데, 우리 속인사회 이 상태, 그것은 누가 함부로 파괴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기에 파괴하지 못한다. 전국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연공(練功)하여 먹지 않고 마시지도 않는지는 말할 것도 없고, 장춘(長春) 이곳에서만 누구나 다 먹지 않고 마시지 않는다고 해도, 내가 말하는데 이것이야말로 일을 덜었다! 조금하게 밥을 지을 필요도 없다. 농민은 농사

짓느라 고생스럽고 고생스러운데, 모두 먹지 않는다면 이것이 야말로 정말 일을 덜었다. 일만 하고 밥을 먹지 않으니 말이다. 그래서야 되겠는가? 그것이 인류사회인가? 틀림없이 안 되며, 이런 일이 광범위하게 속인사회를 교란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일부 기공사들이 벽곡을 전할 때 아주 많은 위험이 나타났다. 어떤 사람은 벽곡을 추구하는 데에 집착하지만, 그의 그 마음을 제거하지 않았고, 많고 많은 속인의 마음도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맛있는 것을 보고 먹지 않으면 먹고 싶어 하는데, 그의 마음이 일어나기만 하면, 그러면 안 된다. 그는 곧 조금해서 음식을 먹으려 하고 욕망이 올라와 곧 먹으려 하는데, 먹지 않으면 배고픔을 느낀다. 그러나 먹으면 곧 토하기에 먹을 수 없으며, 이는 곧 정신적 긴장을 조성하여, 무서워서 야단이다. 많은 사람이 입원했으며 많은 사람에게 확실히 생명 위험이 나타났다. 또 어떤 사람은 나를 찾아와 나에게 이런 난잡한 일을 처리해 달라고 하지만 나도 이런 일을 상관하고 싶지 않다. 어떤 기공사는 함부로 하는데, 누가 그에게 이런 지저분한 일을 수습해 주고 싶겠는가.

게다가 당신이 벽곡하여 문제가 생겼다면, 당신 자신이 구한 것이 아닌가? 우리는 이런 현상이 존재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것은 무슨 고층차 중에서 나타나는 상태가 아니고 또 무슨 특수한 반응도 아니며, 그것은 다만 특수한 정황에서 채용한 연공(煉功)의 한 방식에 불과하다. 그러나 그것 역시 보

사람을 알아볼 수 있다고 했다면, 사람들은 곧 미신이라고 했을 것이다. 이런 데에 그치지 않으며, 어떤 방면에서는 마치 우리 오늘날의 사람을 초월한 듯하다.

어느 날 그는 거짓말탐지기를 한 그루 식물에 연결한 다음, 그는 생각했다: 어떤 실험을 할까? 내가 불로 그것의 잎을 태워서 어떤 반응이 있는가를 보자. 그가 이렇게 생각하자 아직 불을 붙이기도 전에 그 전자필은 곧 급속히 곡선 하나를 그려냈는데, 바로 사람이 목숨을 살려달라고 외칠 때이나 비로소 그려낼 수 있는 곡선이었다. 이런 초감각 공능을 과거에는 타심통(他心通)이라고 했으며 사람의 잠재적인 능력, 본능이었다. 그러나 오늘날의 인류는 모두 퇴화되고 있어, 당신 역시 새롭게 수련해서 반본귀진하여 당신의 선천적 본성으로 되돌아가야만, 당신은 비로소 구비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오히려 구비하고 있으며 당신이 무엇을 생각하는지를 그것은 알고 있는데, 듣기에는 아주 허황하지만 그것은 오히려 확실하고 확실한 과학 실험이었다. 그는 여러 가지 실험을 했는데, 또 원거리 원격조종 공능도 있었다. 그의 논문은 발표 이후, 전 세계에 파문을 일으켰다.

각 나라의 식물학자들이 모두 이 방면의 연구를 전개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하고 있으며, 이는 이미 무슨 미신적인 것이 아니다. 나는 지난번에 이런 한 마디 말을 했다. 우리 인류에게 오늘날 발생했고, 발명되었으며, 발견된 그러한 것들은 우리 오늘날의 교과서를 고치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전통 관

양극(兩極)을 한 그루 우설란(牛舌蘭)에 연결했다. 그런 다음 난의 뿌리 부분에 물을 주었는데, 그 후 그는 거짓말탐지기의 전자필이 급속히 곡선 하나를 그려내는 것을 발견했다. 이 곡선은 바로 사람의 대뇌가 일종의 흥분이나 기쁨을 느끼는 순간에 그려내는 곡선과 같았다. 그는 그때 깜짝 놀랐다. 식물이 어떻게 감정이 있단 말인가! 그는 하마터면 거리에 나가 외칠 뻔했다. 식물이 감정이 있다. 이 일에서 계발(啓發)을 받아 그는 잇따라 이 방면의 연구를 전개했으며 많고 많은 실험을 했다.

한번은 그가 식물 두 그루를 나란히 놓고서 그의 학생에게 그 중 한 그루 식물 앞에서 다른 한 그루 식물을 마구 짓밟고, 뭉개어 죽이게 했다. 그런 다음 남은 한 그루 식물을 방 안으로 옮겨 거짓말탐지기에 연결해 놓고, 그의 다섯 명 학생을 밖에서 차례로 들어오게 했다. 앞의 네 학생이 들어왔으나 반응이 없었다. 다섯 번째 학생, 식물을 짓밟은 학생이 들어오자 아직 앞까지 걸어오지도 않았으나 전자필이 즉시 급속하게 곡선 하나를 그려냈는데, 사람이 두려워할 때에야 그려낼 수 있는 이런 곡선이었다. 그는 깜짝 놀랐다! 이 일은 아주 큰 한 가지 문제를 설명한다: 우리는 여태까지 사람은 고급생명이며 사람은 감각기관 공능이 있어 식별할 수 있고, 대뇌가 있어 분석할 수 있다고 인식해 왔다. 식물이 어찌 식별할 수 있는가. 이렇다면 감각기관이 있는 것이 아닌가? 과거에 누가 만약 식물에게 감각기관이 있고, 사유가 있으며, 감정이 있고,

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적지 않은 사람이 벽곡을 추구하면서 또 그것을 무슨 벽곡·반벽곡(半辟穀)이라 하며 또한 등급까지 나누어 놓았다. 어떤 사람은 그가 물을 마신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과일을 먹는다고 하는데, 그것은 모두 가짜 벽곡으로서 시간이 길어지면 보증코 모두 안 된다. 진정으로 수련하는 사람은 산굴 속에서 머무르며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데, 그것을 진짜 벽곡이라고 한다.

기(氣)를 흠치다

기(氣)를 흠치는 것을 말하면, 어떤 사람은 호랑이 말만 해도 안색이 변하듯이 겁이 나서 감히 연공(練功)하지 못한다. 수련계의 일부 사람이 주화입마(走火入魔), 기를 흠치는 등등의 현상을 말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감히 연공하지 못하게 하고, 감히 기공을 접촉하지 못하게 했다. 만약 이런 설이 없었더라면 더욱 많은 사람이 연공할 수 있었을 것이다. 또 어떤 心性(썩썩)이 좋지 못한 기공사는 전문적으로 이런 것들을 가르쳐 수련계를 난장판으로 만들었는데, 사실 그가 말한 것처럼 그렇게 무섭지 않다. 우리는, 기는 곧 기라고 말한다. 비록 당신이 그것을 혼원기(混元氣), 이런 기, 저런 기라고 하더라도 말이다. 인체에 기(氣)가 있 기만 하면 이 사람은 바로 병을 제거하고 몸을 건강하게 하는 이 한 층차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연공인(煉功人)이라고 할

수 없다. 사람에게 기(氣)가 있기만 하면 이 사람은 아직 신체를 고도로 정화(淨化)하지 못했음을 설명하며 바로 병기(病氣)가 있는 것인데, 이것은 확실하다. 기를 흠치는 사람 역시 기의 층차 중에 있다. 우리 연공(煉功)하는 사람이 누가 아주 혼탁한 그 기를 가지겠는가? 연공하지 않는 사람의 신체는 기가 아주 혼탁한데, 연공한 후에는 맑고 밝아질 수 있다. 병이 있는 곳은 밀집도가 아주 높은 한 덩어리 흑색물질로 드러날 수 있다. 계속 연마(煉)해 나가서 진정하게 병을 제거하고 몸을 건강하게 했을 때에는 기가 점차적으로 약간 누렇게 변한다. 계속 더 연마하면 정말로 병이 제거되고 또한 기가 없어져, 곧 유백체(奶白體) 상태로 진입한다.

그러면, 다시 말해서 기가 있다면 병이 있는 것이다. 우리는 연공인(煉功人)인데, 연공하는 사람이 기를 가져서는 될하겠는가? 자신의 신체는 정화가 필요한데, 어찌 또 혼탁한 기를 가지겠는가! 정녕코 가질 수 없다. 기를 가지려는 사람은 역시 기의 층차 중에 있으며, 기의 층차 중에서 그는 어느 것이 좋은 기이고, 어느 것이 나쁜 기인지를 분별해 내지 못하며, 그는 이런 능력이 없다. 또한 당신 신체의 단전(丹田) 속 그 진기(眞氣)를 그는 건드릴 수 없으며, 그 원기(元氣)는 그런 높은 공부(功夫)가 있는 사람만이 건드릴 수 있다. 신체의 그 혼탁한 기를 그에게 흠쳐가게 하라. 뭐 그리 대단할 것이 있는가. 나는 연공(煉功)할 때 기를 부어넣고 싶으면 생각만 해도 잠깐이면 배가 부풀어 오른다.

총괄해 냈다. 백양나무의 기는 흰 것이고 소나무의 기는 누런 것이며, 또한 어떠한가 채집하며 어느어느 시간에 채집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은 말한다: 내가 우리 집 문 앞에 있는 나무의 기를 채집하여 그것을 죽여 버렸다. 그것을 무슨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가? 그것은 나쁜 일을 하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리 진정한 수련은 양성(良性)적인 정보를 중시하며 우주특성에 동화함을 중시하는 것인데, 당신은 선(善)의 문제를 중시해야 하지 않는가? 眞(眞)·善(善)·忍(忍), 우주특성에 동화하는 데에는 이 선(善)을 중시해야 한다. 당신이 내내 나쁜 일만 한다면 공이 자랄 수 있겠는가? 병을 제거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우리 수련인과 바로 상반되는 것이 아닌가? 그 역시 살생이며 나쁜 일을 하는 것이다! 아마 어떤 사람은 말할 것이다: 당신은 말할수록 더욱 허황하다. 동물을 죽여도 살생이고 식물을 죽이는 것 또한 살생이라고 하다니. 사실인즉, 불교 중에서는 육도윤회를 말하는바, 당신은 육도윤회 중에서 식물로 변할 수 있는데, 불교 중에서는 바로 이렇게 말한다. 우리 여기에서는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에게 알려주는데, 나무도 생명이 있으며 생명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아주 높은 사유 활동을 구비하고 있다.

예를 하나 들겠다: 미국에 전문적으로 전자 연구를 하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사람들에게 거짓말탐지기 사용법을 가르쳤다. 어느 날 그는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 거짓말탐지기의

며, 고에너지물질인데, 다른 사람이 훔쳐간다면 그것이 거기에 있을 수 있는가? 그것도 거기에 있지 않으며 놓아도 놓여 있지 않는데, 자신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무릇 진정으로 연공(煉功)하는 사람, 공이 나온 후의 사람은 모두 사부가 책임진다. 그 사부는 당신이 거기에서 무엇을 하는지 지켜보고 있는데, 남의 것을 가져간다면 그의 사부도 가만있지 않는다.

기(氣)를 채집하다

기(氣)를 훔치는 것과 기를 채집하는 것은 모두 우리가 고층차에서 공을 전하면서 여러분에게 해결해 주어야 할 문제가 아니다. 왜냐하면 나는 또 이런 목적이 있기 때문인바, 수련을 위하여 이름을 바로잡아 주어 좋은 일을 좀 하려고 이런 불량한 현상을 말하는데, 과거에는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 우리 여러분에게 그것을 알게 해, 일부 사람들이 늘 나쁜 일을 하던 것을 하지 않도록 하고, 일부 사람들, 기공의 진상을 분명하게 모르는 사람들이 늘 말만 듣고도 무서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우주의 기는 얼마든지 있는데, 어떤 사람은 천양지기(天陽之氣)를 말하고, 지음지기(地陰之氣)를 말한다. 당신도 우주 중의 한 분자로서 당신이 얼마든지 채집해도 좋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우주 중의 기를 채집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전문적으로 식물의 기를 채집하는 것을 가르치며 경험까지도

도가에서는 천자장(天字樁)을 서는 것을 말하고, 불가에서는 봉기관정(捧氣灌頂)을 말하는데, 우주 중에는 기가 얼마든지 있으므로 당신이 하루 종일 안으로 부어넣어도 된다. 노궁혈(勞宮穴)이 열리고 백회혈(百會穴)이 열리면 당신은 안으로 부어넣을 수 있으며, 의념으로 단전을 지키고 손으로 기를 안으로 부어넣으면 잠깐이면 가득 찬다. 당신이 아무리 가득 부어넣는다 해도 무슨 소용이 있는가? 어떤 사람은 기를 아주 많이 연마(練)했을 때, 손가락 볼록한 곳이 부풀고, 신체가 부풀어 오름을 느낀다. 다른 사람이 곁에 가면 주위에 장(場)이 있는 것을 느낀다. 와, 당신은 연공(練功)을 참 잘했군. 내가 말하는데 아무것도 아니다. 어디 공이 있는가? 여전히 기를 연마한 것으로서, 기가 아무리 많다 해도 공을 대신할 수 없다. 기를 연마하는 목적은 바깥의 좋은 기로써 신체 속의 기를 바꾸어 신체를 정화하기 위함인데, 기를 좀 남겨두어서는 뭘 하겠는가? 당신이 이 층차 중에서 본질적 변화를 일으키지 못했다면 그것은 역시 공이 아니다. 당신이 훔친 것이 아무리 많다 해도 당신은 여전히 기를 담은 큰 자루에 불과한데,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그것 역시 고에너지물질로 전화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당신은 무엇이 두려운가. 그가 정말로 기를 훔치려 한다면 훔치게 하라.

여러분, 생각해 보라. 당신의 신체에 기가 있다면 병이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가 훔칠 때에 당신의 병기까지도 함께 훔쳐가는 것이 아닌가? 그는 이것을 전혀 분별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기를 가지려고 하는 사람 역시 기의 이 층차 중에 있기 때문에 그는 아무런 능력도 없다. 공이 있는 사람은 기를 가지지 않는데, 이것은 틀림없다. 믿어지지 않으면 우리 실험해 보자. 정말로 기를 흠치려 한다면, 당신은 거기에 서서 그에게 흠치게 하라. 당신은 이쪽에서 우주 중으로부터 안으로 부어넣는다고 생각하고, 그는 뒤에서 흠친다. 당신이 보라. 이 얼마나 좋은가. 당신을 대신해 신체정화를 빠르게 하여 당신이 ‘충관(沖灌), 충관(沖灌)’ 하지 않아도 되게 했다. 그가 내보내는 마음이 나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것을 흠쳤다. 비록 좋지 못한 것을 가져갔다고는 하지만, 그 역시 德(덕)을 손상하는 일을 하였으므로, 그는 당신에게 德(덕)을 주어야 한다. 그것은 대류(對流)를 형성하는데, 이쪽에서는 당신의 기를 가져가고, 저쪽에서는 당신에게 德(덕)을 준다. 기를 흠치는 그 사람은 모른다. 만약 그가 안다면, 그는 정말로 감히 하지 않을 것이다!

무릇 기를 흠치는 사람은 안색도 푸르죽죽한데, 모두 이러하다. 공원에 가서 연공(練功)하는 많은 사람은 바로 병을 제거하기 위함인데, 그는 무슨 병이나 다 있다. 다른 사람은 병을 치료할 때에 틀림없이 밖으로 배출할 것이나, 기를 흠치는 사람, 그는 배출조차도 하지 않고 온몸에 넣어서 어떤 병기(病氣)든 다 있는데, 신체 속까지 모두 칠흑(漆黑)이다. 그가 늘 德(덕)을 손상하기에 그의 길도 시커먼데, 업력장(業力場)이 크고 德(덕)이 많이 손상되어, 안팎이 모두 시커멓

다. 기를 흠치는 사람, 그가 만약 자신에게 이런 변화가 일어나 남에게 德(덕)을 주는, 이런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음을 안다면 그는 정말로 하지 않을 것이다.

어떤 사람은 기를 너무나도 허황하게 말한다: 당신이 미국에 있어도 내가 기를 내보내면 당신은 받을 수 있고, 당신이 담장 밖에 있어도 내가 내보내는 기를 당신은 받을 수 있다. 어떤 사람은 아주 민감하여 기를 내보내면 받는다. 그러나 그 기, 그것은 이 공간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다른 공간으로 가는데, 다른 공간의 여기에는 담장이 없다. 그러면 왜 어떤 기공사가 평지에서 기를 내보내도 당신은 감각이 없는가? 다른 공간 여기에 간격(間隔)이 있기 때문인데, 기는 결코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꿰뚫는 힘이 큰 것이 아니다.

진정하게 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은 여전히 공(功)이다. 연공인(煉功人)이 공을 내보낼 수 있을 때에 그는 이미 기가 없으며 내보내는 것은 고에너지물질로서, 천목으로 보면 일종의 빛이다. 다른 사람의 몸에 내보내면 매우 뜨거운 감각이 있으며 직접 속인을 제약할 수 있다. 그러나 역시 병을 완전히 치료하는 목적에는 도달할 수 없으며, 다만 억제 작용을 일으킬 수 있을 뿐이다. 정말로 병을 잘 치료하려면 역시 공능이 존재해야 하며, 각종 병은 각종 공능이 대처한다. 극미시하에서 공의 매 한 미립자는 모두 당신 개인의 형상과 똑같다. 그것은 사람을 알아볼 수 있고 모두 영성(靈性)이 있